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5. 9.(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863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어버이날 기획 가요무대」 ‘부모’

-방송일시 : 2023. 5. 8.(월) 1TV (22:00-22:55)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이 진행됐는데, 무척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어머니를 위해 「가요무대」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도 해당 방송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겠다.

○ 시청자 참여 제언(3명)

-프로그램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증상으로 보는 발 질환’

-방송일시 : 2023. 5. 9.(화) 1TV (10:00-11:00)

고령의 시청자로 혼자 살고 있다. 이날 발 질환을 다뤘는데, 평소 발이 아파 병원을 다니던 터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실시간 문의도 하고 싶었는데,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해 아쉬웠다. 본인처럼 혼자 사는 고령층 시청자는 어플 사용 방법을 물어볼 사람도 없다.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63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00	101	1	-	361	863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13	239	21	-	-	190	863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49	714	-	863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35	2	64	162	863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녀들의 여유만만」 - 후속 방송 요청 <p>【보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뉴스광장」 - 보도 호평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쇼 진품명품」 - 소품 판매 요청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청자 참여 제언 ○ 「해 볼만한 아침 M&W」 - 방송 호평 <p>【연예·오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버이날 기획 가요무대」 - 방송 호평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유선의 가정음악」 - 진행자 섭외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 「50년 전통 물회」 연락처 문의 56건 ○ 「2TV 생생정보」 - 「한우육회막국수」 연락처 문의 22건 ○ 「아침마당」 - 「티벳 참여 문의」 17건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출연자」 연락처 문의 16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14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2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20건 ○ 「수신료」 문의 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20건 ○ 「전화교환」 문의 19건 ○ 「견학」 문의 1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62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후속 방송 요청	<p>○ 「그녀들의 여유만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7. 16.~2019. 8. 23. (월-금) 2TV 방송. (총 274부작) - 오전 시간에 유익하게 시청했었다. 유용한 정보가 많아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데, 종영이 된지 1년이 지난 프로그램은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아쉽다. 추후 다시 제작되었으면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보 도]	
보도 호평	<p>○ 「KBS 뉴스광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 9.(화) 1TV (06:00-07:50) - 지난 달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 ‘리바운드’가 이탈리아 우디네에서 열린 극동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아침부터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 또한 최현미 기상캐스터가 전해주는 날씨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됐다. 매일 오전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는 기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최**</p>
[시사 · 교양]	
소품 판매 요청	<p>○ 「TV쇼 진품명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TV (일) (11:00-12:00) - 해당 방송의 오랜 팬이다. 해당 방송에서 감정가와 가장 가까운 답을 내놓은 패널에게 장구 하나가 주어진다.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그 장구가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판매하지 않아 아쉽다. 「TV쇼 진품명품」의 팬들을 위해 소품을 판매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시청자 참여 제언	<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리고 시리고 아프다! 증상으로 보는 발 질환’(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 9.(화) 1TV (10:00-11:00) - 고령의 시청자로 혼자 살고 있다. 이날 발 질환을 다뤘는데, 평소 발이 아파 병원을 다니던 터라 관심 있게 시청했다. 실시간 문의도 하고 싶었는데, 티벗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해 아쉬웠다. 본인처럼 혼자 사는 고령층 시청자는 어플 사용 방법을 물어볼 사람도 없다.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해 불만한 아침 M&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 9.(화) 2TV (07:00-09:00) - 방송을 시작하며 진행자들이 「해 불만한 아침 M&W」가 1주년을 맞이했다고 전해주었다. 본인은 평소 해당 방송을 매우 유익하게 시청하는 시청자라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경제 소식과 국제 뉴스를 전해주는 코너가 굉장히 알차다. 좋은 방송으로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연 예 · 오 략]	
방송 호평	<p>○ 「어버이날 기획 가요무대」 ‘부모’(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 8.(월) 1TV (22:00-22:55) -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이 진행됐는데, 무척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어머니를 위해 「가요무대」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도 해당 방송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섭외 제언	<p>○ 「윤유선의 가정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FM (월-금) (09:00-11:00) - 장일범 씨가 진행할 때부터 「가정음악」을 청취해온 애청자이다. 이후 김미숙 씨를 거쳐 현재는 윤유선 씨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배우로서 윤유선 씨를 좋아한다. 그러나 클래식 채널의 진행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차례 건의했는데, 유명 배우에게 진행을 맡기지 말고 클래식 전문가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